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4), 299~314, 2006. 12.

청주지역 주부들의 환경정의에 관한 의식*

강영복** · 이수옥***

La Conscience de la Justice Environnementale des Maitresses de Maisons dans le District de Cheong-Ju*

Young-Pork Kang** · Su-Ok Lee***

요약 : 본 연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정도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발전도상국 국민, 유아 및 고령자 등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환경자원 이용에 있어서 그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는 현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 받고 있다는 환경적 불평등 현상을 청주지역 주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환경 정의적 관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환경관련 변인에 따른 환경정의 의식차이를 조사 · 분석함으로써 정의적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3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381부를 대상으로 spss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부들은 자원 절약을 통해 환경보전 행동을 실천하려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주부들의 환경정의 의식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환경자원 이용에 따른 불평등은 개인적인 요인과 관계가 깊다는 의식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반대로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서는 환경 관련 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유발된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관련변인에 따라 환경정의 의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령, 학력, 직업, 생활만족도, 월평균 소득, 절약생활 실천 정도, 환경오염 방지 노력 정도, 환경 피해 최소화 노력 정도에 따라 환경정의 의식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많고, 직장이 있는 주부들의 환경정의 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앞으로의 환경정의 연구는 계층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지역을 확대하고, 실제로 유발되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문제를 환경 정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를 통해 환경정의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정의적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환경교육과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환경정의, 환경 불평등, 자원절약, 주부, 환경교육

Résumé : En dépit de amélioration notable enregistrées ces décennies dans le domaine de la protection environnementale d'étres humains continuent de vivre dans un milieu physique isalubre. Ce sont les pauvres, les peuples du sous développés, les enfants, les pérsonnes âgées et les pérsonnes de couleur qui sont le plus exposés auxrisques associés à cette situation et de loin. Le movement pour la justice

* 이 논문은 2006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eur, Dep.d'Enseignement Géographique, Université National de Chungbuk), kangyp@chungbuk.ac.kr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Maîtrise, Ecole d'Enseignement Supérieur, Université National de Chungbuk)

environnementale considére la tous les êtres humains. Ils s'est formé en réaction contre les inégalit s environnementales et sociales, les menaces qui pèsent sur la santé publique, l'inégalité de la porotection sociale. La justice environnementale est à la fois cause et solution du conflit environnemental. Cette recherche a pour objectif d'analyses de prise en compte du dégre de l'action pratique pour la protection environnementale et de la différence d'acte actuel vis-à vis le facteur socio-economique et la conscience sur la justice environnementale des maîtresse de maison dans la ville de Cheong-Ju. La méthode questionnaire pour atteindre l'objective initial repose sur analyses d'entretiens 2004. Les données sont collectionées des 381 maîtresse de maison dans la ville de Cheong-Ju. Les données collectionnées ont éte analysées par SPSS windouw program. Les resultats de cette recherche se résumes ainsi : Le niveau de l'épargne de ressources et de la conscience sur la justice environnementale sont assez élevées et différent significative selon les différence d'âges, les niveaux educatives, les conditions économiques, les niveaux des revenus.

Mots-clés : justice environnementale, inégalite environnementale, épargne de ressource, maîtresse de maison, enseignement environnementale

I. 서 론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1980년대 말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 · 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환경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적과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낙동강 페놀오염사태와 같은 심각한 국내 공해 문제나 리우 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 원칙이 등장하면서 정부에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정책 수립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도 앞 다투어 저오염 물품의 개발, 환경 캠페인 실시, 무공해 상품의 개발과 같은 활동을 시작하면서 환경운동은 특정 계층이나 계급의 이해관계를 능가하는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1993년 한국 최대의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면서 조직화되었다. 2001년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제2조(목적)에서 "하늘과 땅 물 그리고 그곳에 터 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정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22개 항목을 중심으로 열거된 강령에서 산업 구조의 개편과 부의 사회적 재분배 원칙, 어린이나 노약자의 입장 고려 등의 원칙을 밝힘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환경 불평등 해소의 측면을 행동의 한 부분으로 도입하고 있다.

1994년에 창립한 녹색연합은 2001년 개정한 강령의 전문에서 "녹색은 생명과 평화임을 밝히고, 숲과 나무, 하늘과 바다, 물과 갯벌, 우주에 깃든 존재는 우리와 한 생명이다"고 적시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권익"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1999년에 명칭을 변경한 환경정의 시민연대는 명칭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선명하게 환경정의 운동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 단체의 산하기관인 환경정의 포럼을 통해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 · 조사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관 제2조(목적)에 "경제성장과 환경 보전이 조화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홍보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한 것을 보면 명칭에서처럼 환경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면희, 2001, 26-35).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정의는 아직까지 개념적 이해 수준에서 논의되어지고 있지만 점차 환경정의 문제를 현실 환경 문제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려는 인식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새만금 갯벌 매립 사업의 경우 단순한 국토 확장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 지역을 생활기반으로 삼고 있는 어민과 일반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몫을 침해하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환경정의 실현의 문제를 단순한 자연자원 이용에 있어서 분배의 정의적 차원이 아닌 자연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자연 사

용에 따른 생태적 정의 실현의 관점으로 볼 때 1996년 이후 10여년에 걸쳐서 진행된 문장대 · 용화 온천 지구 개발 계획을 둘러 싼 법정 공방의 경우에서 환경 정의적 관점에서의 환경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경상북도지사에 의해 문장대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한 이후 1996년 문장대 · 용화 온천 지구 지주 조합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주조합 및 상주시청과 충청북도 주민들 간에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괴산군지역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의 차원이 아닌 지역간 환경 부정의의 대표적 사례로 해석되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03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온천 개발 불가의 심판이 내려지면서 환경정의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한면희, 2000, 21-29).

1992년 이후 리우 회의와 선진국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정의를 법률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법 체계는 헌법 제 35조의 "환경권"에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과 그 하위에 개별 환경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국내외 환경여건의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정책 기본 이념의 재정립 및 환경행정의 발전방향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이주의, 1999, 15-19).

환경부는 "1990년대 이래 새로운 환경정책의 지도이념으로 대두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환경정의의 개념, 지구환경보전의 목표 등을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현행법의 제1장 2조를 구체화하여 1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3항에는 지구환경 보전을 그리고 2항에는 "환경적 혜택은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지역이나 소득수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널리 골고루 향유되어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환경정의 이념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 방향을 잡고 있다(전병선, 2000, 7-10; 환경부, 2000, 4-5).

우리나라에서 환경정의 관련 연구는 일찍이 한국 공간 환경학회의 몇몇 소장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고 논의되었고, 소득과 관련한 환경 피해의 부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최병두, 1999, 56-57; 한면희, 2000, 26; 조명래, 2001, 71-76). 그 후 충북지역 중 · 고등학생들과 청주지역 노인들의 환경정의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강영복 · 송영미, 2003, 87-100; 강영복 · 유은습, 2004, 1-11). 환경정의 실현의 문제는 철저한 개인주의에 가려 시민운동으로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균등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 정책적 노력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왔지만 아직까지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1. 연구의 필요성

인류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자원을 개발하여 대량생산에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량소비와 대량폐기가 환경파괴나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환경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환경의 질은 인구의 팽창, 도시화,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물질들, 인구 과밀화 현상으로 인한 자원 고갈의 문제,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과 양적 팽창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의 심화, 식량 증산을 위한 수단으로써 화학비료 · 농약 등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 등 환경문제는 국민의 생활 전면을 덮고 있으며 개개인은 물론 전 인류의 생존기반과 복지를 크게 위협하는 인류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Smith, D. M., 1994, 219-220; Bryan, B., 1995, 161-162; Faucheux and Noel, 106-109).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로 실시된 대형 국책 산업과 일부 재벌 주도로 진행된 공해 산업의 발전은 단기간 내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도하여 경제적 풍요로움과 여가 문화생활을 괄목할 정도로 향상시켰지만, 반면 빈부의 격차 심화, 도시 범죄의 증가, 환경오염 심화, 인간성 상실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최병두, 1999, 217-218).

그러나 실제 환경문제나 환경피해가 모든 계층이나 모든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활동 주체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원과 환경은 그 자체로서 이미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으며,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나 수단들도 사회 공간적으로 불평등하게 보유되거나 분포될 수밖에 없다(Talbot, C., 1998, 78-79). 즉 환경문제는 흔히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지만, 부유한 계층이나 발전한 지역에 속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환경재해를 예방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다. 빈곤한 계층이나 소외된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Wenz, P., 1998, 151-152). 또한 환경이 오염되면 사회적 약자(노동자, 농어민, 저소득층, 발전도상국 국민)와 생물학적 약자(유아 및 유소년, 고령자, 동식물)들이 그 피해를 더 크게 입는다. 한편 환경이 개선될 경우의 혜택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약자들보다 사회적 강자들이 더 많이 누리게 된다(이정전, 1994, 48-52). 환경문제 및 환경피해는 단순히 자연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빈부 격차의 해소를 비롯한 경제 · 사회적 분배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 동안의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환경오염원인 및 피해 등의 전반적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환경시설이나 수단의 배분에 관한 연구도 계층적 · 지역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및 이의 불평등한 배분을 유발하는 구조적 배경이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부유층의 과다한 자원 이용으로 인해 환경문제는 더욱더 심화되었으며 저소득층에게 그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환경문제는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 해소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환경정의적 인식들이 출현하게 되었다(최병두, 2001, 36-40).

최근 들어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60-70% 이상이 생활하수, 생활 쓰레기, 가정연료 등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볼 때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은 가정, 특히 가정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강자들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이 환경피해를 더욱 더 받고 있으며, 사회적 강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자원이용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의 의식주 생활을 몸소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환경정의(環境正義)적 관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 세대의 과도한 자연 개발로 인해 미래세대의 환경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주부들이 인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과도한 자연자원 이용에 따른 미래세대의 환경문제 불평등에 대한 의식 전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정의 의식주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의 환경보전 행동 수행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변인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 정의적 관점에서 빈부차, 지역차, 권력의 소유여부, 국가의 경제적 능력, 세대 간에 있어서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연적 인공적 자원의 이용기회가 적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더 심하게 받고 있다는 불평등 현상을 주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관련변인에 따른 환경정의 의식을 조사 · 분석하여 환경 정의적 의식 확산을 통해 환경교육과 정치 · 경제 · 사회적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보전을 위해 실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가?

둘째, 환경정의에 대한 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관련 변인에 따른 환경정의 의식수준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및 도구

조사 대상자는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390명이다. 청주시 지역은 전통적인 일반 주택지역과 1990년대 이후 새로이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의 군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대기 상태나 생활 편의 시설 등에 있어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표집은 조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지역을 안배하였다. 도심지와 신흥 아파트 단지, 구 주택 밀집지역, 도시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지를 중심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영동, 수동, 북문로, 남문로 지역의 주부들 70명과 시 외곽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용암동, 율량동, 사천동, 분평동, 복대동, 가경동 지역의 주부 200명, 금천동, 영운동, 내덕동, 사직동, 운동동 등 구 주택 등이

표 1. 질문지의 구성

구 성 개 념		문항수	문 항 번 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10	II.1 ~ 10
	환경관련 특성	4	II.11 ~ 14
환경보전행동	자원절약 행동	8	III.1,2,3,4,5,7,8,9
	환경오염 방지 행동	14	III.6,10,11,12,13,14,15,16,17,18,19,20,21,22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행동	7	III.23,24,25,26,27,28,29
환경정의에 관한 의식	환경정의 개념에 관한 환경정의 의식	7	I.2,7,14,17,18,21,22
	환경 편익비용에 관한 환경정의 의식	2	I.12,16
	환경자원 이용에 관한 환경정의 의식	6	I.3,6,8,9,11,15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환경정의 의식	8	I.1,4,5,10,13,19,20,23

위치한 지역의 주부 70명, 지동동, 지북동, 오동동, 명암동, 월오동 등의 시 외곽지역의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소득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주부들의 주거지나 다양한 회의장, 개인적인 모임 또는 직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 분석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경 보전에 관한 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환경정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2. 자료 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는 2004년 8월 5일부터 10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30부에 대한 분석 결과와, 2004년 8월 10일-2004년 8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대면 타당도 검증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9월 1일~2004년 10월 20일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총 390부 중 부실 기재된 9부를 제외하고 38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PC+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자원절약 행동, 환경오염 방지 행동이나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검증, one 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 s Multiful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환경정의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 t검증, one 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 s Multiful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의 알파계수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 표 2이다. 조사 대상 주부의 연령별 분포는 39세 이하가 34.6%로 가장 많고 40-49세가 33.9%, 50세 이상이 31.5%로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7%, 대졸 이상이 36.5%, 중졸 이하가 12.9%였다. 주부의 취업 여부는 전업 주부가 67.7%, 직업이 있는 주부가 32.3%였으며 자녀수는 2명이 65.1%로 가장 많았고 3명 이상이 24.9%, 1명 이하가 10.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주부들은 87.4%가 부부와 자녀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10.8%가 시부모와, 1.8%가 친정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거주 종류로는 아파트가 70.1%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이 20.5%,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9.4%로 대부분의 가정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주부들의 결혼 기간은 10년-19년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20-29년이 31.2%, 9년 이하가 13.6%, 30년 이상이 9.2%로 나타났다. 주부의 생활 만족도는 전체의 65.1%가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1.8%는 보통이다에, 3.1%는 불만족 한다에 응답하였다. 종교는 기독교 36.7%, 무교 26.8%, 불교 25.2%, 천주교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400만원이 24.1%, 200만원이하가 23.4%였고, 400만원이상의 가정도 19.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주부들이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지적한 것은 쓰레기 오염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수질오염이 27.8%, 대기오염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연 령	39세 이하	132	34.6
	40대	129	33.9
	50세 이상	120	31.5
	계	381	100.0
학 력	중졸이하	49	12.9
	고 졸	193	50.7
	대졸이상	139	36.5
	계	381	100.0
직 업	전업주부	258	67.7
	직업주부	123	32.3
	계	381	100.0
자 녀 수	1명이하	38	10.0
	2명	248	65.1
	3명이상	95	24.9
	계	381	100.0
부모와의 동거여부	시부모 동거	41	10.8
	친정부모 동거	7	1.8
	핵 가 족	333	87.4
	계	381	100.0
거주종류	단독주택	78	20.5
	아 파 트	267	70.1
	연립, 다세대	36	9.4
	계	381	100.0
결혼기간	9년 이하	52	13.6
	10-19	175	45.9
	20-29	119	31.2
	30년 이상	35	9.2
	계	381	100.0
생활만족도	만 족	248	65.1
	보 통	121	31.8
	불 만 족	12	3.1
	계	381	100.0
종 교	불 교	100	26.2
	기 독 교	140	36.7
	천 주 교	39	10.2
	무 교	102	26.8
	계	381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이하	89	23.4
	200만-300만	125	32.8
	300만-400만	92	24.1
	400만원이상	75	19.7
	계	381	100.0
심각한 환경문제	수질오염	106	27.8
	농산물오염	43	11.3
	소 음	9	2.4
	쓰레기 오염	124	32.5
	대기오염	88	23.1
	토양오염	11	2.9
	계	381	100.0
환경지식 습득방법	대중매체	349	91.6
	강연, 모임, 친지	20	5.2
	서 적	12	3.1
	계	381	100.0
환경지식 실생활 도움여부	도 움 됨	265	69.6
	보 통	102	26.8
	도움않됨	14	3.7
	계	381	100.0
사용식수 종류	정 수 기	183	48
	식수구입	18	4.7
	수돗물끓여서	113	29.7
	약 수	62	16.3
	수 돗 물	5	1.3
	계	381	100.0

이 23.1%, 농산물 오염이 11.3%로 나타났고, 토양오염이 2.9%, 소음이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지식은 조사 대상 주부의 91.6%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2%가 강연이나 친지, 모임을 통해서, 3.1%가 서적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남숙(1994, 80-96)의 연구에서 주부들이 환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로 TV · 라디오 · 신문 등의 매스컴을 88.1%로 제시한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는 환경 지식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는 도움이 된다 69.6%, 보통이다 29.8%, 도움이 되지 않는다 3.7%로 대부분의 주부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수로는 48%가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9.7%가 수돗물을 끓여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16.3%가 주변의 약수를 4.7%가 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수돗물을 그냥 이용하는 가정도 1.3%로 나타났으나, 이는 마을 단위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원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2) 환경보전행동 특성

조사대상 주부들의 환경보전 행동은 자원 절약 행동, 환경오염 방지 행동, 환경 피해 최소화 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환경보전 행동

조사대상 주부들의 환경보전 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환경 보전 행동은 자원절약 행동이 2.51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오염 방지 행동이 2.23인데 비해,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행동은 2.0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3. 환경보전 행동

구 분		평 균	SD
환경보전 행동	자원 절약 행동	2.51	0.54
	환경오염 방지 행동	2.23	0.63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행동	2.07	0.50
	계	2.31	0.60

(2) 하위 영역별 환경 보전 행동

주부들의 환경보전 행동을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 대상 주부들의 자원절약 행동은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통해 실천하는 경우가 2.85로 가장 높았으

표 4. 하위영역별 환경보전 행동-자원절약 · 오염방지 · 오염피해 최소화 행동

구 분			평 균	SD
자 원 절 약 행 동		생활용품 직접 제작 및 교환사용	2.30	0.56
		절전, 절수	2.11	0.58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	2.85	0.36
		계	2.51	0.54
환경오염방지행동		오염물질 사용 자제(저공해 세제, 환경마크 확인)	2.24	0.63
		재생용품 사용(화장지, 충전용 건전지, 재생 유리)	2.32	0.67
		1회용품 자제(컵, 접시, 은박지, 비닐장갑, 랩, 비닐봉지)	2.37	0.56
		계	2.23	0.63
환경오염피해 최소화 행동	의 생 활	세탁기 사용 후 세제 잔유물 제거	2.20	0.84
	식 생 활	농약, 오염물질 제거방법 사용	2.06	0.83
		친환경 농축산물 구입	2.08	0.76
		수돗물이외 식수 사용	2.73	0.48
		계	2.32	0.56
	주 생 활	침구나 매트리스는 정기적으로 소독	2.12	0.77
		실내에 친환경 소재 이용	1.77	0.78
		공기청정기 사용	1.40	0.73
		계	1.75	0.61
	소 계		2.07	0.50

며, 생활용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2.30, 절전이나 절수 운동을 통해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경우가 2.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환경오염 방지 행동은 비닐봉지 사용 자제, 1회용 컵, 접시, 비닐 등의 사용 자제, 랩이나 은박지 등의 오염물질 사용 자제를 통한 행동이 2.37로 가장 높았으며, 충전용 건전지나 재생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2.32, 오염 방지제품의 구입 · 사용, 샴푸 사용 자제, 저공해 세제 활용, 환경 마크 확인을 실천하는 경우가 2.2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저공해 세제를 사용하거나 환경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고가의 제품으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엄하정(1993, 78-84)의 연구에서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하여 서울시 주부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활용품 사용을 자제한다에 2.00의 행동 수준을 나타낸 반면, 청주시 주부들은 환경오염 방지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에 2.23의 행동 수준을 나타내어 환경오염 방지 행동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 대상 주부들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동 2.23, 자원절약을 위한 행동은 2.51로 전체적으로 중간정도의 수행을 나타내고 있어, 환경오염 방지 행동 보다는 자원 절약을 통해 환경 보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이나 분리수거 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나, 2004년 이후 실시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오염 물질 사용은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샴푸나 세제에 있어서는 오염 방지제품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적었던 반면, 필요에 따라 사용빈도가 낮은 1회용품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차이와, 보다 편리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생활양식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주부들의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돗물 이외의 식수 사용의 경우 2.73으로 가장 민감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탁기 사용 후 세제 잔유물을 제거한다가 2.20, 침구나 매트리스를 정기적으로 소독한다가 2.12, 농약이나 오염물질 잔류물 제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 정도가 2.06, 친환경 농축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정도가 2.08인 반면 실내 장식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는 정도는 1.77, 공기청정기 사용에 있어서는 1.40으로 의생활이나 식생활에 비해 주생활과 관련한 오염피해 방지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수돗물 이외의 식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정도를 나타낸 반면 공기 청정기 사용은 가장 낮은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공기 청정기는 대부분 고가의 제품으로 조사 대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주부들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행동보다는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사용 자제를 통한 환경 보전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제품들을 사용하거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절약생활이나 오염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가정에서의 지출 감소와도 관련되며,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는 주부들의 행동양식과도 부합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 환경정의에 관한 의식

1) 환경정의 의식

조사 대상 주부들의 환경정의에 관한 의식 수준은 표 5와 같다.

환경정의 의식은 2.67로, 이는 충북지역 중 · 고등학생들의 의식이 2.12(강영복 · 송영미, 2003, 87-100)로, 청주지역 노인들의 의식이 2.10(강영복 · 유은습, 2004, 1-11)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높은 의식 수준을 나타냈다. 하위 영역별로는 환경자원 이용 관련 의식이 2.70으로 가장 높았고, 환경정의 개념 관련 의식이 2.66, 환경 편익비용 배분 관련 의식이 2.54, 환경오염 피해 관련 의식이 2.5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환경자원 이용과 관련한 환경정의 의식은 소득이나 환경 관련 지식의 정도 등 개인의 능력 관련 요인과 관계가 깊다는 의식이 2.79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나 주변의 환경 자원 이용 시설의 입지 등 사회 환경과 관련이 깊다는 의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한 환경정의 의식은 사회 환경과 관련이 깊다는 의식이 2.67로, 개인의 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의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조사 대상 주부들은 환경자원 이용의 경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정의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반면 환경오염 피해의 경우는 개인의 능력보다 주변 환경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 환경 부정의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환경자원 이용에 의한 부정의는 개개인의 능력 향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진 반면, 환경오염 피해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환경정의 의식

환경정의 의식			평균	SD
전 체			2.67	0.47
하위 영역별 환경 정의 의식	환경정의 개념 관련 의식		2.66	0.48
	환경편익비용 배분 관련 의식		2.54	0.70
	환경자원 이용 관련 의식	개인 관련 요인	2.79	0.42
		환경 관련 요인	2.56	0.54
		계	2.70	0.50
	환경오염 피해 관련 의식	개인 관련 요인	2.42	0.69
		환경 관련 요인	2.67	0.49
		계	2.52	0.50

2) 하위 영역별

(1) 환경정의 개념

조사 대상 주부들의 환경정의 개념에 관한 의식 수준은 표 6과 같다.

환경오염 피해를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항과 노약자에 대해 국가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문항, 동식물 남획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항이 2.80 이상의 의식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문항과 고급 소비재 사용으로 원산지 주민이 심각한 환경 피해를 받고 있다는 문항에 2.70 이상의 의식 수준을 나타낸 반면, 공기청정기나 연수기 등의 생산 · 판매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표 6. 환경정의 의식 - 환경정의 개념

구 분	평 균	SD
환경오염 피해를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2.86	0.43
환경오염 피해를 많이 받는 노약자에 대해 국가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2.82	0.48
공기청정기, 연수기 등이 생산 · 판매되면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불평등 현상이 더욱 커졌다.	2.36	0.75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사회가 불공평하다.	2.71	0.59
국토개발이 미래세대에 태어날 후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2.53	0.72
모피, 원목가구의 소비가 늘면서 원산지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받고 있다.	2.79	0.49
동식물 남획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미래세대가 불이익을 받는다.	2.81	0.35
계	2.66	0.48

는 문항과 국토 개발이 미래세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문항은 2.60이하의 의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동식물 남획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미래세대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항에서 충북지역 중 · 고등학생들은 2.43의 의식 수준을 보였고(강영복 · 송영미, 2003, 87-100), 청주지역 노인들은 2.24의 의식수준을 보인데 비해서 주부들은 2.81의 수준으로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내었다(강영복 · 유은습, 2004, 1-11). 국토 개발이 미래세대에 태어날 후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문항에는 충북지역 중 · 고등학생들이 2.30, 청주지역 노인들이 2.18의 의식수준을 보인 반면, 청주지역 주부들은 2.53으로 가장 높은 의식을 보였다.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문항에는 충북지역 중 · 고등학생들이 2.18, 청주지역 노인들이 2.33의 의식 수준을 보인 반면 청주지역 주부들은 2.71로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충북지역 중 · 고등학생들은 동식물의 생명 존중에 관계된 환경정의 의식이 가장 높고, 청주지역 노인들은 환경 피해가 불공평하다는 의식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청주지역 주부들은 생태계 파괴로 인한 미래세대의 불이익 문제에 가장 높은 환경정의 의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미래세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의 역할과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고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환경 편익 비용

조사 대상 주부들의 환경 편익 비용의 배분에 관한 환경정의 의식 수준은 표 7과 같다.

환경 편익 비용이란 인간이 개인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을 향유한 결과 유용한 자원을 소비하고 끊임없이 외부환경으로 배출하는 대가를 의미하는데, 대표적 편익비용으로 수도요금, 쓰레기 처리 비용, 전기 요금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의 지불과 관련하여 환경정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환경 편익 비용과 관련한 환경정의 의식은 쓰레기 처리 비용에 있어 영세서민이나 농촌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다에 2.53, 수원지의 오염이 심한 지역의 주민들이 비싼 수도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문항에 2.56 정도의 의식을 나타내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에 비해 수도요금 문제에 좀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의 경우 수도요금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으며, 수돗물은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3) 환경자원 이용

조사 대상 주부들의 환경자원 이용과 관련한 환경정의 의식은 표 8과 같다. 환경 자원 이용에 있어서는 개

표 7. 환경정의 의식 – 환경 편익 비용

구 분	평 균	SD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대도시 영세서민이나 농촌지역 주민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여 불이익을 받는다.	2.53	0.67
수원지 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들이 비싼 수도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2.56	0.72
계	2.54	0.70

표 8. 환경정의 의식 – 환경자원 이용

구 분		평 균	SD
개 인	재생용품은 상류층보다 서민층이 더 많이 사용한다.	2.62	0.68
	냉난방 시설을 이용하여 추위, 더위에 관계없이 항상 쾌적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2.86	0.44
	친환경 농축산물 이용의 필요성을 느껴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2.82	0.48
	계	2.79	0.42
환 경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2.78	0.50
	콘도, 골프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은 위락시설 이용자보다 환경오염 피해를 많이 받는다.	2.65	0.65
	절전이나 절수 등 자원절약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	2.28	0.83
	계	2.56	0.54
소 계		2.70	0.50

인의 능력과 관련한 의식이 2.79, 사회적 환경과 관련한 의식이 2.56으로 개인적 능력의 향상으로 환경 자원 이용에 관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냉난방기와 친환경 농축산물의 사용 능력과 관련한 의식이 2.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부의 자원 절약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에는 2.28의 의식 수준을 보였다. 이는 주부들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자원 절약 정책에 대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에 2.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개인적인 능력 이외에도 환경오염 방지 대책의 지역차를 해소함으로써 누구나 공평하게 환경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부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환경오염 피해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한 환경정의 의식은 표 9와 같다. 환경오염 피해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한 의식이 2.42, 사회적 환경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한 의식이 2.67로 표 9에서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조사 대상 주부들은 환경오염 피해에 있어서 개인적인 능력으로 극복 할 수 있다는 의식보다 사회 환경적 차이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능력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의식하고 있었다. 특히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인위적 방지시설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에 2.09, 환경지식이 풍부할수록 환경오염 피해를 적게 받는다에 2.27,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오염의 피해를 적게 받는다에 2.30,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환경 피해를 적게 받는다에 2.44의 의식수준을 보인 것은 환경오염 피해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으로 피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충북지역 중 · 고등학생들이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오염의 피해를 적게 받는다에 1.57, 환경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환경오염의 피해를 적게 받는다에 1.82의 의식 수준을 보였으며(강영복 · 유은습, 2003), 청주지역 노인들의 경우 각각 1.71, 1.90(강영복 · 유은습, 2004)으로 타 항목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환경정의 의식을 보였던 것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선진국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화학 공장을 후진국으로 이전하여 후진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항에는 충북 지역 중 · 고등학생이 2.32, 청주지역 노인들이 2.08의 의식을 보였는데, 주부들은 2.7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선진국의 환경오염 시설 이전으로 인해 후진국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한 많은 매스컴 자료를 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충북지역 중 · 고등학생들의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환경정의 의식이 1.91, 청주지역 노인들은 2.15의 수준을 나타낸 반면 청주지역 주부들은 2.52로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내었다.

3. 관련변인별 환경정의 의식

환경정의 의식에 대해 연령, 학력, 직업, 생활만족도, 월평균 소득 등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절약생활 행동, 환경오염 방지 행동, 환경피해 최소화 행동 등 환경보전 행동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9. 환경정의 의식 – 환경오염 피해

구 분		평 균	SD
개 인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인위적인 방지시설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	2.09	0.89
	환경오염을 피해 청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다.	2.63	0.65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오염의 피해를 적게 받는다.	2.30	0.84
	환경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환경오염의 피해를 적게 받는다.	2.27	0.84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환경 피해를 적게 받는다.	2.44	0.75
	친환경 제품으로 건설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환경오염 피해를 덜 받는 사람도 있다.	2.66	0.57
	계	2.42	0.69
환 경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이 소홀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많이 받는다.	2.50	0.72
	선진국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화학 공장을 후진국으로 이전함으로써 후진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2.78	0.50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환경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2.62	0.67
	계	2.67	0.49
소 계		2.52	0.50

1) 환경정의 의식

관련 변인에 따른 환경정의 의식의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주부들의 환경정의 의식은 학력, 직업유무, 환경오염 방지 행동과 관련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 대졸 이상 주부가 2.76으로 중졸 이하의 주부들보다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동의 정도가 높은 경우 보통의 노력을 실천하는 경우보다 좀 더 높은 환경정의 의식을 나타내었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2.71로 전업 주부에 비해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연령별로는 50세 이상보다는 40대에서 환경정의 의식이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의 경우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정의 의식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환경보전 행동과 관련해서는 절약생활을 실천한다에 응답한 주부와, 환경오염 방지행동의 정도가 높은 주부들의 의식수준이 높았던 반면,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의 정도가 낮은 주부들의 환경정의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행동과 관련해서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로 보았을 때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도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관련변인별 환경정의 의식

변인		환경정의의식	평균	DMR
사회인구학적변인	연령	39세 이하	2.69	ab
		40대	2.72	a
		50세 이상	2.59	b
		F비	2.806	
	학력	중졸 이하	2.59	b
		고졸	2.63	ab
		대졸이상	2.76	a
		F비	3.643*	
	직업	전업주부	2.66	
		취업주부	2.71	
		t값	-1.015*	
	생활만족도	만족한다	2.68	
		보통이다	2.66	
		불만족한다	2.58	
		F비	0.295	
	월평균소득	200만원미만	2.60	
		200만-300만	2.68	
		300만-400만	2.68	
		400만원 이상	2.73	
		F비	1.248	
환경보전행동	절약생활	그렇다	2.75	
		보통이다	2.68	
		그렇지않다	2.66	
		F비	0.148	
	환경오염방지	그렇다	2.81	a
		보통이다	2.63	b
		그렇지않다	2.71	ab
		F비	2.748*	
	환경피해최소화	그렇다	2.65	
		보통이다	2.65	
		그렇지않다	2.71	
		F비	0.898	

*p<.05

2) 하위영역별 환경정의 의식

(1) 환경정의 개념

관련 변인별 환경정의 개념과 관련한 환경정의 의식을 분석한 결과 학력, 직업유무, 환경오염 방지행동의 실천 여부와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1 참조).

학력에 있어서는 중졸이하의 주부들보다 대졸이상의 주부들이 환경정의 개념과 관련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실천하는 주부가 2.78로 보통의 노력을 하는 주부들에 비해서 높은 환경정의 의식을 보였다. 특히 직업과 관련하여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전업주부에 비해서 취업주부가 좀 더 많은 사회관계망과의 관련성으로 새로운 정보에 접하는 기회가 많아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어 환경교육 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 최남숙(1994)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환경 관련 정보나 지식의 차이가 환경정의 개념에 관한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연령의 경우 40대에서 2.68로 가장 높은 의식을, 50세 이상은 2.62로 가장 낮은 의식을 보였다.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에 응답한 주부보다 불만족한다에 응답한 주부들의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월평균 소득 400만원이상과 200만원-300만원의 주부들이 높은 환경정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절약 생활을 실천하는 경우가 실천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통 수준의 실천을 하는 주부들의 환경정의 의식이

표 11. 관련변인별 환경정의 의식 - 환경정의 개념

변인		환경정의의식(개념)	평 균	DMR
사회인구학적변인	연 령	39세 이하	2.66	
		40대	2.68	
		50세 이상	2.62	
		F비	0.740	
	학 력	중졸 이하	2.53	b
		고졸	2.64	ab
		대졸이상	2.72	a
		F비	3.427*	
	직 업	전업주부	2.63	
		취업주부	2.70	
		t값	-1.452**	
	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2.67	
		보통이다	2.61	
		불만족한다	2.75	
		F비	0.928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2.62	
		200만-300만	2.67	
		300만-400만	2.61	
		400만원 이상	2.73	
		F비	1.203	
환경보전행동	절약생활	그렇다	2.75	
		보통이다	2.63	
		그렇지않다	2.68	
		F비	0.644	
	환경오염 방지	그렇다	2.78	
		보통이다	2.60	
		그렇지않다	2.71	
		F비	3.107*	
	환경피해 최소화	그렇다	2.68	
		보통이다	2.63	
		그렇지않다	2.69	
		F비	0.809	

*p<.05, **p<0.01

표 12. 관련변인별 환경정의 의식 - 환경 편익 비용

변인		환경정의의식(편익비용)	평 균	DMR
사회인구학적변인	연 령	39세 이하	2.67	
		40대	2.64	
		50세 이상	2.61	
		F비	0.208	
	학 력	중졸 이하	2.59	
		고졸	2.66	
		대졸이상	2.63	
		F비	0.319	
	직 업	전업주부	2.66	
		취업주부	2.61	
		t값	0.667	
	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2.64	
		보통이다	2.64	
		불만족한다	2.67	
		F비	0.017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2.65	
		200만-300만	2.68	
		300만-400만	2.62	
		400만원 이상	2.59	
		F비	0.401	
환경보전행동	절약생활	그렇다	2.50	
		보통이다	2.62	
		그렇지않다	2.66	
		F비	0.398	
	환경오염 방지	그렇다	2.81	a
		보통이다	2.56	b
		그렇지않다	2.74	ab
		F비	4.534**	
	환경피해 최소화	그렇다	2.59	
		보통이다	2.61	
		그렇지않다	2.70	
		F비	1.040	

**p<.01

가장 낮았다.

(2) 환경 편익 비용

관련변인별 환경 편익비용과 관련한 환경정의 의식을 분석한 결과 환경오염 방지 행동과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2 참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보통 수준의 행동을 한다에 응답한 주부들의 환경정의 의식이 2.56으로 가장 낮은 반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동을 한다에 응답한 주부가 2.81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에 비해서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 편익 비용이 총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지출 정도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취업주부에 비해서 전업주부가 더 높은 의식을 나타냈다. 생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생활에 만족한다에 응답한 주부의 의식이 낮았으며, 월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400만원이상의 주부보다 대체로 300만원이하의 소득을 나타내는 주부들이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내었다. 절약생활의 실천 여부와 관련하여 대체로 절약생활을 실천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주부들의 의식이 높았으며, 환경피해 최소화 행동의 경우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주부들의 환경정의 의식이 높았다.

(3) 환경자원 이용

환경 자원 이용에 대한 관련변인별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환경 자원 이용과 관련한 환경정의 의식은 학력과 직업유무, 월평균 소득과 절약 생활 행동의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이상이 2.79로 중졸이하의 주부들과 비교해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취업주부 보다는 직장이 있는 주부가,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보다 200만원 이상의 주부들이 높은 환경정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절약생활을 실천하는 주부가 그렇지 않은 주부보다 환경정의 의식이 높았다.

표 13. 관련변인별 환경정의 의식 - 환경자원 이용

변인		환경정의의식(자원이용)	평 균	DMR
사회인구학적변인	연 령	39세 이하	2.74	a
		40대	2.73	ab
		50세 이상	2.61	b
		F비	2.722	
	학 력	중졸 이하	2.53	b
		고졸	2.67	ab
		대졸이상	2.79	a
		F비	5.657**	
	직 업	전업주부	2.67	
		취업주부	2.74	
		t값	-1.197*	
	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2.71	
		보통이다	2.65	
		불만족한다	2.83	
		F비	0.998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2.54	b
		200만-300만	2.74	a
		300만-400만	2.72	a
		400만원 이상	2.77	a
		F비	4.060**	
환경보전행동	절약생활	그렇다	2.75	
		보통이다	2.76	
		그렇지않다	2.64	
		F비	2.977*	
	환경오염 방지	그렇다	2.74	
		보통이다	2.70	
		그렇지않다	2.70	
		F비	0.325	
	환경피해 최소화	그렇다	2.65	
		보통이다	2.68	
		그렇지않다	2.73	
		F비	0.551	

*p<.05, **p<.01

연령에 따라서는 39세 이하의 주부가 2.74로 가장 높고 50세 이상의 주부가 2.61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던 사회를 살아온 50대 이상 주부들의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환경자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부들의 환경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영복 · 유은습(2004, 1-11)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의식주를 해결할 때 환경문제나 환경오염과 결부시켜 생활할 겨를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환경정의적 환경의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충북지역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의 환경정의 의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와는 부합되는 결과이다(강영복 · 송영미, 2003, 87-100).

(4) 환경오염 피해

관련변인별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한 환경정의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에 있어서는 39세 이하의 주부가 가장 높은 의식을 나타냈고, 50세 이상의 주부들의 의식이 가장 낮았다. 학력에 있어서는 중졸 이하가 2.49, 대졸이상이 2.55로 학력이 높을수록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업 주부보다는 직장이 있는 주부가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한 환경정의 의식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남숙(1994, 1-152)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주부가 환경교육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듯이,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가 환경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활만족도에서는 대체로 생활에 불만족하는 경우의 환경정의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소득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정의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소득에서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한 환경정의 의식이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절약 생활 행동과 관련해서는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

표 14. 관련변인별 환경정의 의식 – 환경오염 피해

변인		환경정의의식(오염피해)	평 균	DMR
사회인구학적변인	연 령	39세 이하	2.58	a
		40대	2.53	ab
		50세 이상	2.44	b
		F비	2.563	
	학 력	중졸 이하	2.49	
		고졸	2.50	
		대졸이상	2.55	
		F비	0.525	
	직 업	전업주부	2.16	
		취업주부	2.53	
		t값	-0.236	
	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2.49	
		보통이다	2.58	
		불만족한다	2.50	
		F비	1.229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2.51	
		200만-300만	2.51	
		300만-400만	2.52	
		400만원 이상	2.55	
		F비	0.106	
환경보전행동	절약생활	그렇다	2.88	a
		보통이다	2.51	b
		그렇지않다	2.52	b
		F비	2.098	
	환경오염 방지	그렇다	2.59	
		보통이다	2.49	
		그렇지않다	2.88	
		F비	0.851	
	환경피해 최소화	그렇다	2.44	
		보통이다	2.49	
		그렇지않다	2.58	
		F비	1.695	

다에 응답한 주부들에 비해서 그렇다에 응답한 주부의 의식이 2.88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 행동이나 환경 피해 최소화 행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주부들의 환경정의 의식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오염 방지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주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이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환경 자원 이용에 있어서 그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는 현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 받고 있다는 환경적 불평등 현상을 주부들이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를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밝혀보고,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환경 보전 행동과 관련한 의식 차이를 조사 · 분석함으로써 정의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 분석을 위해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390명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1일-2004년 10월 20일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표집은 조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지역을 안배하였으며, 부실 기재된 9부를 제외하고 총 38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주부들은 대부분의 환경지식을 신문 · 라디오 ·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습득하고 있으며, 습득한 환경지식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생활에서 환경 보전 행동의 정도를 자원 절약 행동, 환경오염 방지 행동,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행동을 중심으로 파악해 본 결과 자원 절약 행동을 가장 많이 하였고,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행동은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변인에 따른 자원 절약 행동은 월평균 소득 300만원-400만원의 주부들과 결혼 30년 이상의 주부들이 가장 많이 하였고, 환경오염 방지 행동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결혼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에 만족할수록 많이 하고 있었다.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행동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과, 직업이 있는 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었으며, 월평균소득 200만원이상의 주부들과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주부들이 가족들의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주지역 주부들의 환경정의 의식은 2.67로, 충북지역 중 · 고등학생들의 의식이 2.12로(강영복 · 송영미, 2003, 1-11), 청주지역 노인들의 의식이 2.10(강영복 · 유은습, 2004, 87-100)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환경자원과 관련된 영역의 의식이 가장 높았으며, 환경편익비용에 관한 의식이 가장 낮았다. 특히 환경자원 이용에 따른 불평등은 개인

적인 요인과 관계가 깊다는 의식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서는 환경 관련 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유발된다는 의식이 높았다.

넷째. 관련변인에 따른 환경정의 의식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과 40대 연령층, 환경오염 방지 행동을 많이 하는 주부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관련변인에 따른 환경정의 의식에 있어서,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의식은 중졸 이하 주부들이 낮은 반면, 대졸 이상의 주부들과 직업이 있는 주부들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 편익 비용에 대한 의식은 오염 방지 행동을 많이 한다고 응답한 주부들이 높았고, 환경자원 이용에 관한 의식은 3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과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의 주부들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환경자원 이용에 따른 불평등은 개인적 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의식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과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의 주부들에게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40대의 연령층,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과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의 주부들은 환경자원 이용에 따른 불평등이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식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환경정의 의식은 39세 이하의 연령층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절약생활을 통한 환경보전 행동을 많이 하는 주부들의 의식이 높았다. 개인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환경오염 피해가 불공평 할 수 있다는 의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타 항목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환경오염 피해가 불평등할 수 있다는 의식에서는 현재 생활에 보통이다에 응답한 주부들의 의식수준이 높았다. 관련 변인별 분석 결과를 보면 학력과 연령, 직업,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많았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은 경우 환경정의 의식이 높았고, 월평균 소득이 많은 가정의 주부가, 전업주부보다는 직장이 있는 주부의 환경정의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주지역 주부들의 환경정의 의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환경 자원 이용 관련 영역에서의 환경정의 의식이 가장 높았다. 특히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으며 직업이 있는 주부들의 환경정의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들을 바탕으로 환경정의 의식 확산을 통해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 문제를 환경정의 개념, 환경 편익비용, 환경 자원이용, 환경오염 피해의 불평등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좀 더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의 의식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계층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큰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의식의 측면보다는 실제로 유발되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문제를 환경 정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연구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계층별, 지역별, 개인의 능력별 격차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대상 주부들이 다양한 환경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대중매체와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정의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교과서 제작과 정책이 아울러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복 · 송영미, 2003, "환경정의에 관한 충북지역 중 · 고등학생들의 의식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1(3), 87-100.

강영복 · 유은습, 2004, "환경정의에 관한 청주지역 노인들의 의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1-11.

엄하정, 1993,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주부들의 관리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전, 1994, "분배와 환경문제", 환경과 생명, 94년 겨울호, 환경과 생명사.

이주의, 1999, "21세기 환경법의 발전방향", 환경정책기본법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환경부 및 한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전병성, 2000,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방향", 환경정책기본법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환경부 및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전재경, 2000,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 환경과 생명, 2000년 겨울호, 환경

과 생명사.
조명래, 2001, 환경정의론의 재조명: 담론에서 실천으로, 우리시대 환경의 과제, 도서출판 환경정의.
최병두, 1999, 환경 갈등과 불평등, 도서출판 한울.
_____, 2001,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환경위기, 환경과 생명사.
한면희, 2000,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속리산 문장대 · 용화 온천 문제", 환경과 생명, 2000년 겨울호, 환경과 생명사.
_____, 2001, "환경운동의 이념과 한국 NGO의 평가", 환경과 생명, 2001년 가을호, 환경과 생명사.
환경부, 2000,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 시안.
Bryant, B.(ed), 1995,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Policies, and Solutions, Island Press, Washington D.C.
Faucheux, S. and J.-F. Noel, 1995, Economie des ressources naturelles et de environment, Paris, Armand Collin.
Peter Wenz, 1988, Environmental Justi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Smith, D. M., 1994,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Blackwell, London.
Talbot, C, 1998, Environmental Justice,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San Diago, Calif, Academic Press.

최초투고일 : 2006. 08. 29.
최종접수일 : 2006. 11. 20.

교신 : 강영복,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kangyp@chungbuk.ac.kr, 043-261-2696)
Correspondence : Young-Pork Kang, kangyp@chungbuk.ac.kr